



"Miracle at Nain" (1620), Mario Minniti(1577-1640), The Regional Museum of Messina, Sicily

“젊은이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러자 죽은 이가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루카 7, 14-15)

[제1독서] 열왕기 상권 17,17-24

[화답송] 시편 30(29), 2와 4.5-6.11-12 그리고 13
(© 2기 참조)

◎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 주님,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당신은 저를 구하시어, 원수들이 저를 보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주님, 당신이 제 목숨 저승에서 건지시고, 구렁에 떨어지지 않게 살리셨나이다. ◎
- 주님께 충실한 이들과,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거룩하신 그 이름 찬송하여라. 그분의 진노는 잠시뿐이나, 그분의 호의는 한평생이니, 울음으로 한밤을 지새워도, 기쁨으로 아침을 맞이하리라. ◎
- “들으소서,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저의 구원자 되어 주소서.” 당신은 저의 비탄을 춤으로 바꾸시니, 주 하느님, 영원히 당신을 찬송하오리다. ◎

[제2독서] 갈라티아서 1,11-19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우리 가운데에 큰 예언자가 나타나셨네.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네. ◎

[복음] 루카 7,11-17

[성가 안내]

- 입당성가: [21] 지극히 전능하신 주여
- 봉헌성가: [340] 봉헌
[220] 생활한 제물
- 성체성가: [182] 신묘하온 이 영적
[190] 지존하신 성체
- 파견성가: [209] 사랑하올 예수 성심이어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엘리야는 긴 가뭄 동안 한 과부의 집에 머물렀는데 그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끝내 숨을 거두고 맙니다. 엘리야는 그 어머니에게서 아들을 받아 안고 옥상 방으로 올라가서 자기 잠자리에 눕힙니다. 그리고 그 아이 위로 세 번 자기의 몸을 펼친 다음 하느님께 기도합니다. “주 저의 하느님, 이 아이 안으로 목숨이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1열왕 17,21) 하느님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들의 목숨을 살려주십니다. 엘리야는 그 아이를 다시 어머니에게 돌려주지요.

유대인들은 불마차를 타고 하늘에 오른(2열왕 2,11) 엘리야가 종말에 다시 이 세상에 올 것이라는 메시아 사상에 젖어 있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이미 엘리야가 왔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연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지만,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제멋대로 다루었다.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마태 17,11-12) 주님께서서는 세상에 다시 온 엘리야로 세례자 요한을 꼽고 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엘리야를 예언자로 보고 세례자 요한을 마지막 예언자로 보셨던 것입니다.

루카 복음사가는 예수님께서 카파르나움에서 백인대장의 종을 고쳐 주신 다음 갈릴래아 지방 나인에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대목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그 마을 성문 가까이 지나고 계실 때 사람들이 과부의 죽은 아들을 메고 가는 장례 행렬과 마주치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서는 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과부를 보시고 측은한 마음을 가지십니다. 주님께서서는 앞으로 나아가 관에 손을 대시고 “젊은이여,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루카 7,14)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아이는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죽은 이를 살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며 하느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인 그들은 과거에 엘리야가 사렘타 마을에서 과부의 아들을 살려서 어머니에게 돌려준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아들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신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듯이 예수님과 엘리야를 같은 맥락의 큰 예언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죽은 아이를 옥상으로 올라가 자신의 방에 눕어놓고 그 위에 세 번이나 자신의 몸을 펼치고 하느님께 청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그 아이의 관을 잡으시고 한 마디 말씀으로 그 아이를 일으켜 세우시고 아이를 죽음으로부터 구하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서는 예루살렘 앞 동네 벳타니아에서 죽은 나자로를 말씀 한마디로 살리십니다. 마치 창세기에서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처럼 예수님께서도 하느님의 능력으로 한마디의 말씀으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소외된 계층인 과부의 슬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랑의 손길을 펼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 스스로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하느님 나라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Young man, I tell you, arise!”

During the long drought, Elijah stayed in the house of a widow. Later the son of the widow fell sick, and his sickness grew more severe until he stopped breathing. Elijah carried him to the upper room where he was staying, and laid him on his own bed. Then he stretched himself out upon the child three times and he called out to the Lord: “Lord, my God, let the life breath return to the body of this child.” The Lord heard the prayer of Elijah; the life breath returned to the child’s body and he lived. Elijah gave him to his mother.

The Israel people believed in the Messianic Idea and they believed that Elijah would come again at the end of the world as he had gone up to heaven by a fiery chariot. However, Jesus told his disciples that Elijah had already come and he said, “Elijah will indeed come and restore all things; but I tell you that Elijah has already come, and they did not recognize him but did to him whatever they pleased. So also will the Son of Man suffer at their hands.” The Lord referred to John the Baptist as the returned Elijah. The Lord saw John as the last prophet.

The Gospel of Luke tells us about the incident, when Jesus saved a son of a widow in a city called Nain after he had cured a Centurion’s slave in Capernaum. As Jesus drew near to the gate of the city, a man who had died was being carried out, the only son of a widow. When the Lord saw her, he was moved with pity for her and said to her, “Do not weep.” He stepped forward and touched the coffin; at this the bearers halted, and he said, “Young man, I tell you, arise!” The dead man sat up and began to speak. Fear seized them all, and they glorified God, exclaiming, “A great prophet has arisen in our midst,” and “God has visited his people.” They remembered the incident when Elijah saved the son of a widow in Zarephath of Sidon.

At the first glance, it appears that Jesus and Elijah made the same miracle. However, there was a big difference between two incidents. Elijah carried the son to the upper room where he was staying, and laid him on his own bed. Then he stretched himself out upon the child three times and he called out to the Lord. However, touching the coffin, the Lord raised the son just by a few words. In the same way, the Lord raised Lazarus at the town of Bethany just by a few words. It was just like God had created the world just by a few words in Genesis. Jesus reached out his hands of love to the poor people like the widow without turning blind eyes to their sorrows and pains. Jesus himself rose from the death, and promised the kingdom of heaven and our own resurrection.

예수 성심 성월

예수 성심의 무한한 사랑, 사랑의 실천으로 응답하는 삶

6월은 예수 성심 성월로 예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묵상하는 달이다. 하느님을 사랑하셨고 인간을 사랑하셨던 그분의 생애를 묵상하는 시기이다. 인간을 극진히 사랑하신 나머지 인간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하신 예수 성심의 사랑을 묵상하며, 우리는 그 사랑에 합당한 응답의 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며 보속과 희생의 생활을 실천해야 한다.

예수 성심 신심의 목적은 인간이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을 예수 성심과 함께 사랑으로 보답함으로써 첫째 계명(신명 6,5; 마태 22,37-38; 마르 12,29-30; 루카 10,27)을 온전히 이행하는 데 있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무한한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사랑의 실천이다.

성녀 마르가리타에게 내리신 예수 성심의 메시지

예수 성심 공경이 완전한 형태를 갖추고 세계적으로 보급된 계기가 된 것은 프랑스 방문회(The Visitation Order) 수녀인 성녀 마르가리타 마리아 알라코크(St. Margaret Mary Alacoque, 1647-1690)에게 내리신 예수 성심의 메시지였다. 예수께서는 성녀에게 70여 회 발현하시어 메시지를 전하셨는데,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① 예수 성심은 무한한 사랑의 원천이며 모든 이가 이 사랑으로 동화되기를 바라신다.
- ② 예수 성심을 통해 나타나는 하느님의 사랑은 인간의 보답적 사랑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또 갈망하신다.
- ③ 세상의 죄악을 배상하는 탁월한 방법으로 영성체와 성시간 기도를 바치기를 바라신다.
- ④ 예수 성심을 공경하는 특별한 축일을 제정하여 교회가 보편적(세계적)으로 당신께 영광을 드림으로써 죄악이 배상되고 성심의 천상 은총을 풍성히 받기를 원하신다.

그 후 교회는 마르가리타 수녀의 시복에 즈음하여 세밀한 조사를 거쳐 마르가리타 수녀가 받은 사적 계시가 교회의 신앙이나 윤리에 어긋남이 없음을 인정하였다. 17세기 이후 역대 교황들은 성심 신심에 관한 교회의 공식문서들을 통해 이 신심을 공인하고 널리 권장하였다. 1856년 비오 9세는 성심축일을 전세계 교회축일로 확대했고, 1899년 레오 13세는 전 인류를 성심께 봉헌하였다. 1969년 전례개혁에서는 예수 성심축일을 대축일로 정하고 성령강림 후 둘째 주일(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 대축일)을 지난 금요일에 지키도록 함으로써 성체의 신비와 예수 성심의 불가분의 관계를 더욱 깊이 천명하였다.

예수께서는 마르가리타 성녀에게 살아 움직이는 당신의 성심을 보이시며 보속의 방법으로 자주 영성체(특히 매달 첫 금요일에) 하고 성시간 기도를 바치라고 하셨다. 성시간을 하는 목적은 세상에 대한 하느님의 온전한 사랑을 저버리는 인간의 불경과 배신을 보상하여 성부의 의노를 풀어드리고 죄인들의 회개와 구원을 간구하며, 인간의 약점 때문에 배반의 아픔마저 느끼셔야 했던 예수 성심을 위로하기 위함이다.

이런 의미에서 성체성사를 세우신 예수 성심의 무한한 사랑을 묵상하며 성체현시나 성체조배를 하기를 권장한다.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단 말이냐?” (마태 26,40)고 하신 예수 성심의 고통을 깊이 묵상하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할 것이다”(마르 14,38).

(www.cbck.or.kr)



예수 성심을 응시하는 성녀 마르가리타, 지퀀토 코라도, 1765

예수 성심께 천하만민을 바치는 기도

- 지극히 어지신 구세주 예수님, 주님 앞에 굽어 경배하오니 저희를 굽어살피소서.
- 저희는 이미 주님의 백성이오니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하나 되고자 오늘 저희를 주님의 성심께 봉헌하나이다.
- 주님을 일찍이 알아 모시지 못한 사람도 많고 주님을 알고도 주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주님을 떠난 사람도 많사오니
- 지극히 인자하신 예수님, 이런 사람들도 다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의 성심께 이끌어 들이소서.
- 주님께서서는 목자이시니 주님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을 보살피시고 이미 주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어 굽어 죽지 않게 하소서.
- 웅졸한 고집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나 불목하여 갈린 사람들도 부르시어 저희가 모두 같은 신앙을 고백하며 한 우리에서 한 목자 밑에 살게 하소서.
- 주님, 거룩한 교회를 평화의 깃발로 세우시고 모든 나라에 참된 평화를 주시어 온 세상 어디서나 입을 모아 저희를 구원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히 찬미와 영광과 흠송을 드리게 하소서.
- ◎ 아멘.
- 예수 성심,
- 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소서.



“하느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라” (요한 15,9)

제8회 미 동중부 성령대회

제8회 미 동중부 성령대회(지도 신부 이명성 아우구스티노)가 지난 5월 29일(일)부터 5월 30일(월)까지 볼티모어 한국 순교자 성당에서 개최되었다.

“하느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라” (요한 15,9)는 말씀 아래 본당 교우 70여 명을 포함한 삼백여 명의 참가자들은 한마음이 되어 성삼위 하느님께 사랑과 찬미, 흠승과 감사를 드렸다.

정인준(파트리치오) 주임 신부는 개회식 축사에서 “성령께서는 한 번의 세례로 끝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역동하시며, 우리가 매일 매일 새롭게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고 사랑을 실천하며 복음을 선포하도록 이끄신다”고 전했다.

강의를 통해 부산 교구의 장훈철(바오로) 신부는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믿는 힘으로 살아가고 주님만을 믿는 그 어리석은 마음이 진정한 슬기로운 부활의 증인을 가능하게 한다”며 우리 모두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장 신부는 “침묵과 인내의 성모님을 본받아 골고타의 길이 주님의 부활로 이어지도록 몸과 마음으로 증거하며 현실의 삶 안에서 안주하지 말고 인내로 생명을 얻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하느님께 필요한 것만 청하는 욕심에서 벗어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만 받아 성장시켜 우리 안에 가득히 채우고, 겸손한 모습으로 봉사하며 주님께 받은 은총을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자”고 전했다.



▶ 엠이(ME) 주말 모임



ME 부부 주말 모임이 지난 5월 28일(토)부터 5월 30일(월)까지 2박 3일 동안 뉴저지에서 있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라는 주제 아래 이운일 안드레아 한인 성당(뉴저지 체리힐 소재)의 김성흠(사도 요한) 신부의 지도로 열린 주말 모임에 전체 17부부가 참석했으며 우리 본당에서는 유지일(안토니오), 박홍철(어거스틴), 문대규 (그레고리오), 조영희(세레자 요한) 부부가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세상의 빛이 되는 가정을 지향하며 “서로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일치하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가정에서부터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이들은 마음을 열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며 뜻깊은 주말을 함께 했다.

▶ 꾸르실료



지난 5월 27일(금) 울뜨레야가 성모의 밤 행사 후 친교실에서 있었다. 새로 꾸르실리스파가 된 세 명의 형제들은 나눔 시간에 ‘꾸르실료 이전과 이후의 삶’에 대해 진솔하게 발표했다. 이들은 꾸르실료 주말 피정에서 벅찬 감동을 느꼈으며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환점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평신도 사도직에 충실한 참 신앙인으로서 봉사에 앞장서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다. 공지사항으로 6월 12일(일) 친교실의 탁자 세척과 추계 야외 울뜨레야에 대해 논의했다.

Religious Study

6월 예수 성심 성월



아름다운 예수성심에서, 나 당신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소서
 2016년 6월 10일 www.youngsaints.com

June

Month of the Sacred Heart

<Part I>

The Month of June is dedicated to the Sacred Heart. The Church celebrates the Solemnity of the Sacred Heart of Jesus on the Friday following the second Sunday after Pentecost. In addition to the liturgical celebration, many devotional exercises are connected with the Sacred Heart of Jesus. Of all devotions, devotion to the Sacred Heart was, and remains, one of the most widespread and popular in the Church.

Understood in the light of the Scriptures, the term "Sacred Heart of Jesus" denotes the entire mystery of Christ, the totality of his being, and his person considered in its most intimate essential: Son of God, uncreated wisdom; infinite charity, principal of the salvation and sanctification of mankind. The "Sacred Heart" is Christ, the Word Incarnate, and Savior, intrinsically containing, in the Spirit, an infinite divine-human love for the Father and for his brothers.

PRAYER FOR THE VOLUNTEER WORKCAMPERS

Everlasting God, strengthen and sustain all those who volunteer in our churches; that with patience and understanding they may love and care for your people; and grant that together they may follow Jesus Christ, offering to you their gifts and talents; through him who lives and reigns with you and the Holy Spirit, one God, for ever and ever. Amen.

ANNOUNCEMENTS

1 CCD Outdoor Mass & Picnic Registration

- When : June 19th
- Where : Frying Pan Farm Park
- Students who would like to attend the event need to turn in two forms (Registration and Permission forms) to the Hasang Lobby.
- Deadline : June 5th

2 SPC CCD Summer Camp (Aug. 12 - Aug. 14)

- Registration will start soon

2016



Jr. High WorkCamp

WHEN : July 6-8

WHAT :

The theme this year is called, "**PRODIGAL.**" We will be talking about the story of the Prodigal Son and the Father's mercy!

Junior High WorkCamp is 3 days of service and faith for rising 7th - rising 9th grades, Wednesday, July 6 - Friday, July 8 from 8:30 am to 8:00pm.



On Wednesday, participants will stay at St. Leo for team building and crews will get to know each other. We will work on two large-scale service projects for St. Vincent de Paul and Gabriel Project.

On Thursday, half of the crews will go to St. Veronica and the other half will go to St. Mark to complete work at the parish.

On Friday, we will complete the Food Drive for SVDP, and then the crews will be sent out to nearby nursing homes to spend time with residents.

"Evening Programs" will be filled with the opportunity for Confession and Adoration with Praise and Worship as well as an intention Ros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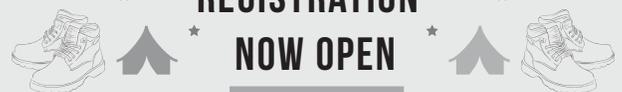
For concluding the week, the work campers will have a special Mass on Friday evening. Following Mass, we will have a "Parent Program," where we will serve dessert and show pictures from the week.

Jr. High WorkCamp is one of our most anticipated events in the summer! It truly is an awesome, blessed week.

Please contact Yun Chong Boyle at spc15.re.admyc@gmail.com or at (703) 371-3589 for further information

REGISTRATION

NOW OPEN



- ➡ ALL FORMS ARE DUE BY June 10th.
- ➡ No late registrations will be accepted.
- ➡ High School Volunteers are needed
- ➡ Cost \$75.00 Space is limited!

“성모성월이요 제일 좋은시절 사랑하올 어머니 찬미하오리다”

성모의 밤 행사

성모의 밤 행사가 지난 5월 27일 (금) 오후 7시 30분부터 본당에서 있었다. 파티마 세계 사도직 주관으로 진행된 성모의 밤 행사에는 교우 380여 명이 참가하여 성모님에 대한 사랑과 기도를 봉헌했다.

제 1부 시작 예식으로 정인준(파트리치오) 주임 신부가 성모님께 화관을 씌워드린 후 각 단체 및 개인별로 꽃·편지를 봉헌했다. 이윤주(엘리사) 자매의 인도로 묵주의 기도 ‘환희의 신비’ 5단을 전 교우가 함께 정성껏 바쳤다.

제 2부 미사에서 정인준 신부는 “로마에서 공부하던 시절 베드로 성당의 피에타 성모님께 많이 의탁하고 기도하며 성모님의 도우심으로 공부를 잘 마칠 수 있었다”며 “여러분도 매일 매일 성모님께 묵주기도를 바치며 착한 자녀로 살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제 3부에서는 김지윤 그라시아 자매가 ‘성모님께 드리는 글’을 봉헌, 지난 4년 간 파티마 가정 썰 모임을 통해 성모님의 도움으로 변화된 자신의 삶과 가정을 돌아보며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그라시아 자매는 “성모님의 맘토 안에서 어떤 어려움과 힘든 시간이 온다 해도 성모님을 붙잡고 썰모임 가정들과 함께 굳건하게 성가정을 이루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것”을 성모님께 약속하며 그동안 함께 해 온 썰모임 가족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담았다.

주일학교 최 엘라(3학년) 어린이는 “성모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성모님께 그리고 성모님과 함께 묵주기도를 드리는 것이 너무 좋다”는 내용을 담은 영문 편지글을 낭독했다. 이후 전 신자가 함께 ‘성모께 자기를 바치는 기도’를 드린 후 마침 강복과 함께 ‘성모의 밤’ 행사를 마쳤다.



1 구역임원 교육

• 일시 : 6월 5일 (일) 오전 11:30 (B-1,2)

2 성모회 임원회의

• 일시 : 6월 5일 (일) 오후 1시 (B-1, 2)

3 청소년 사도회

• 일시 : 6월 5일 (일) 오후 1시 (B-3, 4)

4 바오로회 제2차 총회

• 일시 : 6월 5일 (일) 오후 6시 (친교실)
• 문의: 김윤식 블라시오 (214) 592-6369

5 페루 선교 기금 모금

• 페루 선교 기금을 위해 김밥과 차를 판매하니
신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 6월 5일 (일) 오전 8시 미사 후 - 오후 1시까지
• 문의: 심안젤라 (703)725-6453

6 복사단 학생 모집

• 대상 : 첫 영성체 받은 학생부터 초등학교 6학년
• 신청 : 6월 12일까지 사무실
• 문의: 권용우 스테파노 (571) 244-0333

7 CCD 야외미사 및 소풍 접수

• 야외미사 일시 : 6월 19 (일)
• 장소 : Frying Pan Farm Park Visitor Center, Herndon
• 야외미사 접수 마감 : 6월 5일
(신청서와 퍼미션 슬립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8 꾸르실료 지도 신부님배 골프대회

• 일시 : 6월 5일 (일) 오후 1시 (12:30분 도착)
• 대상 : 전 신자
• 장소 : Pleasant Valley Golf Course
• 참가비 : \$100 (점심, 음료수, 저녁 포함)
• 문의 : 광도덕 도미니코 (703) 608-9664

9 공동체 기도회

• 일시 : 6월 11일 (토) 오후 8시
• 매월 둘째 토요일은 공동체 기도회의 날입니다. 소속 공동체에
참석하시어 신앙과 친교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10 하상 성인학교 서양화반 작품 전시(봄학기)

• 일시 : 6월 5일 (일) 오전 10시 - 오후 1시 (친교실)
• 하상 성인학교 서양화반(강사 김 이레네)에서
봄학기 동안 그린 작품(유화, 아크릴, 수채화) 20점을
전시하니 많은 참여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11 하상 성인학교 봄학기 종강식

• 일시 : 6월 10일 (금) 오전 11:50 (친교실)
• 문의: 김 율리아나 (703)217-2775
(종강식 후에도 수업이 계속 되니 착오
없이 주시기 바랍니다.)

12 단체장 회의

• 일시 : 6월 12일 (일) 오전 11:30 (B-3, 4)

13 꼬미시움 월례회의

• 일시 : 6월 12일 (일) 오후 1시 (B-3, 4)

14 복사단 모임

• 일시 : 6월 12일 (일) 오후 12:40 (B-1, 2)

15 베드로 모임 (40대 교우)

• 일시 : 6월 12일 (일) 오후 12시, 나눔터

16 본당 설립 30주년 기념 음악회 참가자 모집

• 본당 설립 30주년을 기념하며 음악회를 엽니다.
기존 성가대원 및 일반 신자들의 참가 지원서를
받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음악회 일시 : 9월 24일 (토) 저녁 미사후
• 자세한 내용은 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차 헌금 ***

오늘은 중동 지역 (World Mission) 선교 활동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하상 TV 하이라이트

Cox Ch.30, 830
Fios Ch. 30

6월 9일 (목) 오후 9시~11시

- **오늘의 양식** : 성 정 바오로 성당 주일 강론
- **가톨릭 소식** : 교황청, 세계, 한국의 주요 가톨릭 소식 종합
- **생명 그리고 사랑** : 한국 가톨릭 의료원의 첨단 의술
탐방 시리즈
- **우리 시대 사람들** : 한 손에 손가락이 두 개밖에 없지만
훌륭한 피아니스트로 성장한 이희아의 이야기

6월 10일 (금) 오후 10시~11시

- **성경교실** : 정인준 신부의 성경 교실

♡ 4 복음서 필사 노트 전시 ♡

4 복음서(마태오, 마르코, 루가, 요한 복음) 필사노트를
9월 18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성껏 쓴 필사 노트는 본당 공동체
창설 30주년 기념일에 전시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13년(1차)과 2015년(2차)에 성경 통독을
마친 신자들은 사무실에 마련된 양식서에
명단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16년 5월 29일 (성체 성형 대축일)

주일헌금	\$ 6,557.00
교무금	\$ 12,570.00
교우금(신용카드)	\$ 2,000.00
특별헌금	\$ 0.00
2차 헌금	\$ 0.00
합계	\$ 21,127.00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투예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전례 및 청소 담당

6월 5일	비엔나 2
6월 12일	스프링필드

기도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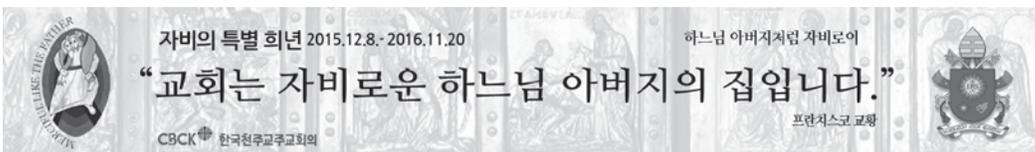
♥ 병중에 계신분

고상균(스테파노), 김경화, 온규희(발바라), Thomas Byrne,
홍종범(시몬), 한중분(루시아), 정맹금(데레사), 김영식(요셉),
박상연(라파엘), 정중희(발바라), 김만복(아네스), Dan Cho,
전원후(마리아), 이강영(테오도로), 김태명(시몬), 신순영,
박재중(요셉), 김용구(베네딕), 송영하(요한)

♥ 군복무자

강로린(루피나), 김도윤(유지니오), 김동진(마태오),
신동우(미카엘), 안성호(요한), 구본인(론지노),
윤백참(프란치스코), 윤시훈(아우구스틴), 임현석(아비또),
이재윤(안토니오 파도바), 손범기(펠릭스), 장동건(스테파노),
장동호(다니엘), 주기환(필립), 최홍집(앤도니), 심용천(요한),
전성호(세례자 요한), 장동길(피터), 최용성(프란치스코),
고미헬(미카엘라), 이솔(루시아), 에스터 정(세레나),
정수지(요안나), 권범수(요한)

※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십시오.



금주의 행사

날짜	축일	행사 및 내용 (시간 및 장소)
6월 5일(일)	연중 제10주일	구역 임원교육(11:30, B-1, 2), 청소년 사도회(13:00, B-3, 4), 바오로회 (18:00, 친교실), 성모회 임원회의(13:00, B-1, 2), CYO Choir BBQ (13:00, 나눔터)
6일(월)	연중 제10주간 월요일	아침 미사(6:00, 성당)
7일(화)	연중 제10주간 화요일	레지오 마리아(20:00, 친교실), 성경기도회(20:00, 친교실), 하상성인학교 (9:00, 하상관, 친교실), 예비자 교리(20:00)
8일(수)	연중 제10주간 수요일	레지오 마리아(9:30, 친교실), 성경학교(20:00)
9일(목)	연중 제10주간 목요일	아침 미사(6:00, 성당)
10일(금)	연중 제10주간 금요일	하상 성인학교 종강식(11:50), CLC (20:00)
11일(토)	성 바르나바 사도 기념일	아침 미사(7:00, 성당), 레지오 마리아 (9:30, 친교실), 공동체 모임(20:00), Senior Banquet (친교실 19:30), 비엔나 구역모임(18:00, 나눔터)
12일(일)	연중 제11주일	단체장 회의(11:30, B-3, 4), 꼬미시움 월례회의(13:00, B-3, 4), 복사단 모임(12:40, B-1, 2), 주일학교 교사 모임(13:00), 재속프란치스코회 모임(20:00), 베드로회(12:00, 나눔터)

RE/MAX Gateway 부동산 www.Rachael.Kim.com 레이첼 김(아네스) 703-652-5790 Cell. 703-774-8945	정재민 치과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정재민(미카엘) DMD, PC 703-825-1191	Pohanka Acura New / Used Cars Yong Kim (미카엘) 847-867-1730 Cell. 571-445-0788	허진 변호사 Law Office Jason Huh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허진(세바스찬) 703-218-5404	엘리사벳 백화점 화장품, 건강식품, 이불, 옷, 신발 마루 깔아드림(무료견적) 배 엘리사벳 703-508-7743
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 mykidspediatricians.com 정소연(크리스티나) 703-865-5437	영스 헬스케어 Youngs Health Care Inc. 간병사, 간호사, 물리치료 서비스 김경해 (아네스) 703-647-0292	김돈현 가정의학전문의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Michael D. Kim, MD 703-591-4100	주택용자, 재용자 EverBank 안윤민 (바실리오) 571-275-0691	문스 자동차 정비 VA 인스펙션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이병일 (다니엘) 703-266-1983
안아픈 세상(양방/한방)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맞사지과 한방나라이역찬한의원 703-658-5100	시티 종합 보험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김수연 (엘리사벳) 703-352-1073	Lee's Heating & Air 히팅 & 에어컨 이일우 (베드로) 703-675-8009	소아전문치과 Pediatric Dental Care Dr. John Han (한장엽) Fairfax 703-383-3434 Springfield 703-992-7100	보험/은퇴연금 이경태 요셉 생명보험, 은퇴연금 학자금, 장기 간호 보험 갖고 있는 플랜 점검 가능 703-785-4494
시원 냉난방 에어컨, 히팅, 플러밍 703-362-7770	민기호 내과 John Min M.D. 703-462-8711	Euromotor Cars Mercedes-Benz 유티노 한 703-855-8710	스카이 학원 전 학년 전문 SAT, 영어, 수학 썸머 등록 중, 조기등록 혜택 김영란 (아네스) 703-867-1144	재노 오 부동산 Washington New Star Realty 재노 오 (로사) 703-772-7275
Susan Interior 커튼, 블라인드 김수산나 703-981-4296	한미 소독 가정집, 상점 (STORE) 하용업 (요한) 703-451-3322	케어피플 & 호스피스 간병사, 방문간호, 물리치료 이선애 (엘리사벳) (O) 571-297-4747 (C) 240-413-0365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Dr. 이형훈 (마르코) 센터빌, 철타리 703-429-4622 락빌 MD 301-231-7588	McLean Psychiatric Services 정신과 치료와 상담 Richard Kim, M.D. 703-336-2406
하얀나무치과 www.whitetreedental.com 박경욱 (크리스) D.D.S. 703-726-8804	F teck connection, LLC POS(cash register), CCTV, Network, Bank Card Services 마르티노 손 540-429-1399	와니 건축 In & Out 핸드맨 Service 부엌, 화장실, 텍 권태완 (빈센트) 571-331-6811	마태오 흥 종합보험 자동차, 집, 사업체, 은퇴연금 장기간호 / 생명 / 건강보험 703-969-8956 703-969-8954	신디 리 부동산 텔리 전문 사업체 이 루시아 703-338-0008
정수정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정수정 (안나) 703-855-8575	그레이스 홈 케어 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 물리치료 전문 간호 식, 박사 운영중 대표 김아네스, RN 703-865-7370	Springfield TOYOTA New / Used Cars 조상준(유티노) 703-269-1400 Cell. 703-909-0688	영스 히팅 에어컨, 히팅 703-728-3160	찬틀리 HYUNDAI 김경태(바오로) 571-314-3467
중미반점 (애난데일 예촌과 WELLS FARGO BANK사이) 임형석(가브리엘) 703-658-2030	Penta Olympic Fencing Club 펜싱 클럽 이영찬(베드로) 703-207-1059 Cell.703-801-3924	ASSA 종합보험 최 클라라 생명, 건강, 비즈니스 자동차, 주택 703-649-2110	5분 도정 즉석 도정미 판매(당일 도정) 현미, 5분도미, 백미 www.JCProvision2016.com 703-366-3286	임경옥 부동산 Gangnam Realty & Management Group, LLC 703-944-1337
윤 조셉 변호사 www.yoonfirm.com 교통법, DUI/DWI, 형법, 개인상해 재판전문 변호사 703-260-6060	Kitchen, Deck Sunroom 해성건축 김영수 (요셉) 571-477-5996	에스터'S 키친 케이테링 전문 www.estherkitchen.com 최은숙 (에스터) 571-215-3232	광고 접수중!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주일 저녁 6시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주)	

성사 · 교리 · 하상학교 안내

성사안내
 · 고해성사 : 미사시작 30분전
 · 병자영성체 : 매주 첫 금요일
 · 유아세례 : 짝수 달 넷째 주일 (주보공지)
 · 혼인성사 : 6개월전 신청 (교육 필수)
 · 병자성사 : 위급하기전 연락 요망

예비자 교리(교리 기간 8개월)
 · 주일 : 11시 40 분 (하상관)
 · 화요일 : 오후 8 시 (하상관)
 예비자나 전입자 또는 방문자는
 성당 입구 봉사센터 또는
 사무실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하상한국학교 (Hasang Korean School)
 · 정규학기 : 일반 Public School 과 동일, 매주 토요일
 · 여름학기 : 매년 6월에 개강
하상성인학교 (Hasang Adult School)
 · 불학기, 가톨릭기 운영 / 매주 화, 금
하상 한국학교 / 성인학교 연락처
 · (703) 968-3070

미사시간 (MASS SCHEDULE)

주일미사	· 08:00 AM · 10:00 AM · 11:40 AM (학생 / 영어미사) · 03:00 PM (우드브릿지 한국어미사) St. Elizabeth Ann Seton Catholic Church · 05:00 PM (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07:30 PM
주일학교 수업	주일 10:00 AM
월 & 목	06:00 AM 화 & 금 07:30 PM
수요일	11:00 AM 토요일 07:00 AM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703)968-3010 | Fax (703)968-3013
 Home Page : www.stpaulchung.org
 E-Mail : sthasang@gmail.com

PARISH STAFF 주임신부 정인준 (파트리치오) | 보좌신부 성원경 (대건 안드레아) | 사도회장 이용현 (요셉)